

hankook.com

스포츠한국



삼성의 쪽방 나눔 활동, 심창민 "연탄 나눔 선물 뿌듯해요"

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yuksamo@sportshankook.co.kr

[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] 삼성 선수단이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.

삼성 배영섭, 정인욱, 김재현, 심창민, 박해민 등 선수 5명은 9일 대구희망드림센터, 삼성전자와 함께 나눔활동에 나섰다.

이들 선수들은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서성로에 위치한 쪽방촌을 찾아가 쌀, 라면 및 통조림으로 구성된 동절기 나눔 물품(900세트)과 연탄 2만장을 전달했다.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날 땀 흘리며 일손을 더했다.

행사에 참여한 심창민은 "좋은 취지의 나눔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"라고 말했다.

삼성 라이온즈는 향후에도 다양한 겨울철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.

입력시간 : 2015-12-09 14:56:07

Copyright © 한국미디어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.